

관광지 재생 연구방향 모색을 위한 관광지 재생 의미와 전략 선행연구 분석*

Analysing Previous Related Study to Seek the Research Direction of Tourism Destination Regeneration Focusing Regeneration's Meaning and Strategy

유 광 민** · 장 병 권***

Yoo, Kwang-Min · Chang, Pyong-Kwon

ABSTRACT

This paper seek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tourism destination regeneration by analysing the historical and contextual elements of destination regeneration and past strategy studies. Academic interests pertaining to tourism destination regeneration has been deficient; perhaps partly due to the lack of mutual agreement on the concept and how it's defined. Previous related studies which focused on Butler's Resort Life Cycle Model do not address considerations related to information on social factors or the regeneration strategies of capital and agencies. The analysis confirms that tourism destination regenera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according to a development paradigm with recognition of social and relationship change; prompting a multidimensional strategy which includes the physical surrounding, political and economical, and cultural facto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ories that can better understand the social relationship and other practices to have space production and reinforce the application of tourism destination regeneration studies.

**핵심용어(Key words) : 리조트 사이클 모델(Resort cycle model),
재생(Regeneration),
재생전략(Regeneration strategy)**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학문후속세대양성_학술연구교수(인문사회)-B00049).

** 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연구교수. e-mail: ykm4458@hanmail.net

*** 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e-mail: pkchang@howon.ac.kr

I. 서 론

과거 유명 관광지들이 쇠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관광지 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5년부터 관광지 재생을 위해 관광지 시설 개선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문화체육관광부, 2008) 관광지 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관광지 재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관광지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지 재생이나 재생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과학적 이해를 통해 관광지 재생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광지 재생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 관광지 재생에 대한 과학적 이해나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김성진, 2010).

정부 정책과 같이 관광지 재생을 리모델링과 같은 시설 개선 등의 단편적이고 단기적 수준의 대책으로 이해하는 것은 관광지 재생에 대한 이해와 재생전략 수립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관광지와 같은 사회적 공간은 주어진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변화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관광지 재생은 생산양식 변화와 같은 사회변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Sedemak & Mihalič, 2008). 각 사회와 생산양식은 해당사회의 생산양식과 생산관계를 조직할 수 있는 공간을 생산한다(Lefebvre, 2011).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생산양식 변화는 새로운 생산양식과 생산관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기존공간을 재구성하게 되며, 도시는 물론 관광지를 포함한 공간의 쇠퇴와 새로운 생산양식에 적합하도록 공간을 재구성하는 전략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생산양식 변화는 자본의 재 입지와 공간의 재구성전략에 영향을 미친다(Soja, 1989).

따라서 관광지 재생연구는 자본의 생산양식 변화에 따른 공간 재구성 전략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이해는 매우 미흡하다. 관광분야에서 Butler(1980)의 관광지 생애주기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관광지 재생연구는 단편적으로 수행되어왔으며(Pageta, Dimanche, & Mouneta,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생산양식 변화에 따른 공간변화를 추동하는 사회적 요인이나 관광지 재생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Agarwal, 2002). 그동안 공간의 쇠퇴나 재생전략에 대한 이해는 주로 생산양식 변화에 의한 자본의 공간 재구성 전략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이고 집합적인 장소인 도시공간이나 산업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Agarwal, 2002). 그러나 관광지 또한 도시의 재생전략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산양식과 생

산관계에 적합한 공간 재구성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도시 재생전략에 대한 이해는 생산양식 변화에 따른 공간재구성 전략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줌으로써 관광지 재생전략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관광지 재생 연구에서 관광지 재생의 의미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김성진, 2010:198). 관광지 재생연구 수행에 있어서 관광지 재생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관광지 재생연구 방향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재생은 단기적 처치와 달리 장기적인 방향을 가진 전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재생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는 재개발과 같은 용어의 사용이 아닌 재생의 사용이 지닌 사회적 의미는 물론 관광지 재생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관광지 재생의 의미와 관광지 재생전략을 중심으로 관광지 재생연구의 경향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지 재생연구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관광지 재생의 의미와 관광지 재생전략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관광지 재생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생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광지 재생 연구 방향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고, 도시재생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생전략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생산양식 변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관계가 관광지 재생전략 연구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광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지 재생연구에 대한 한계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관광지 재생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재생의 의미와 도시 재생전략에 대한 고찰

1. 재생과 도시재생의 의미

1) 사전적 의미의 재생

재생(再生)의 사전적 의미는 '1)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2) 타락하거나 희망이 없어졌던 사람이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 살아감. 3) 낡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함'을 의미 한다(<http://stdweb2.korean.go.kr>, 국립국어교육원표준국어대사전). 영어로의 재생 regenerate는 일정 기간 악화된 상태 이후 이를 좀 더 활동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

전적 의미의 재생은 쇠락한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 새로운 방향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치와 같은 단기 처방적 성격의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전략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광지 재생은 쇠퇴한 관광지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가공하여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기능과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의 재생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볼 때, 쇠퇴한 공간의 재생 연구는 기존 공간의 쇠퇴 원인에 대한 진단, 새로운 공간 재구성의 방향과 이를 추동하는 원인과 배경, 관광지 재생 전략 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재생의 의미를 통해 볼 때, 관광지 재생연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어떠한 변화나 추동력이 기존 관광지 쇠퇴나 새로운 관광지의 출현을 촉진하고 있으며, 쇠퇴와 재생의 추동력들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떠한 전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도시 재생의 의미

도심의 쇠퇴에 대한 대응으로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재생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후부터이다(김병준, 2010). 공간개발에 대한 주요전략, 주요행위자와 이해관계자, 공간적 측면과 사회문화,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의 강조점과 접근전략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를 보여 왔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50년대에는 재건, 60년대에는 회복, 70년대에는 갱신, 80년대에는 재개발, 90년대에는 재생의 시기로 구분되기도 한다(김병준, 2010). 흔히 재개발은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도시계획 사업을 의미하였고, 주로 블록단위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안재섭, 2011). 그러나 90년대 이후, 도시재생은 정책과 집행에 있어서 보다 행위자간 파트너십과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상징적 그리고 정치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통합된 처방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된다(김병준, 2010; Smith, 2007). 이와 같이 재생이라는 용어 사용은 공간개발과 관련된 전략과 주요 행위자의 관계 등의 사회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도시재생의 개념은 일반적 도시 개발과 달리, 대체로 도심부 쇠퇴현상 극복을 통한 중심도심지 도심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박근철·주범·김홍기·김세용, 2011; 조세환, 2010; 최덕철·김광우·정창무, 2006) 종합적인 처방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서술되어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에서도 발견된다.

“도시 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www.kourc.or.kr, 도시재생사업단, 2011.9.15)

이와 같이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심지역에서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처방적인 시설개량의 차원이 아닌 종합적 처방인 전략적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한 합의는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도시 재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생연구에서, 재생은 재건(reconstruction), 회복, 갱신(renewal), 재개발(redevelopment)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김광익·박경현·임상연·서태성, 2009). 그러나 재생이라는 용어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채, 회복(revitalization-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혹은 부활(renaissance-새롭게 탄생하는) 등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mith, 2007:1).

2. 도시 재생 전략의 변화와 다양성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전략은 도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부흥전략과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생산양식 변화에 따른 공간 재구성 전략에 대한 강조점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생산양식은 기존의 공간을 새로운 생산양식에 적합한 공간으로 재구성한다(조명래, 2002). 따라서 공간의 재구성전략은 유연적 축적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생산양식의 출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도시는 물론 관광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1) 도시 재생전략의 변화

70년대의 도시 재생전략은 대도시 육성을 통해 발생하는 노후된 도심 지역의 재개발을 주요 전략으로 하며, 이 전략의 주요 추진주체는 중앙정부이었다. 가장 오랫동안 개발이론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형성해 왔던 성장모델은 성장의 파급효과가 연관 산업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대도시 중심의 성장거점 육성과 하향식 접근방법을 추구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한국지역개발학회, 1996:71-77). 대도시 중심의 성장거점 육성은 도시의 교외화를 통한 도시 확장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도심지역의 쇠퇴라는

공간의 불균등발전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쇠퇴한 도심 공간 개발에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김용창, 2001:108).

유연적 축적체제의 출현은 도시재개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경직된 생산양식을 특징으로 하는 포드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모더니즘사회는 70년대 말을 기점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Harvey, 1989). 이러한 모더니즘의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바로 유연적 축적(flexible accumulation)이며 생산양식의 변화는 전통적인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70년대의 경제위기는 성장모델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게 하였고, 다품종소량생산체계로의 전환은 대규모 조직과 성장거점을 지양하고, 지방조직과 비공식적 메커니즘을 옹호하면서 사기업투자를 권장하는 형태로 나타났다(한국지역개발학회, 1996:79). 유연적 축적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며, 국가정책은 탈규제화와 민영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세계화의 형태로 나타나며, 국가조절체제의 변화를 가져온다. 포드주의 축적체계에서의 국가정책은 중앙집권적이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통제 대상이었던 반면에, 유연적 축적체계에서는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역할을 위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기업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김왕배, 2000a). 이와 같은 유연성 원리 도입과 각 주체의 역할변화는 도시 및 지역개발과 구조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한국지역개발학회, 1996:79). 도시는 이러한 변화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공간 중의 하나이다.

80년대 이후, 지방화시대로 전환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된다. 80년대 재개발에서 중요 행위자는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특징으로 하며, 대규모의 재개발계획을 중요한 개발전략으로 한다(김병준, 2010). 9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부각됨으로써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개발전략 패러다임이 부각되게 된다. 그리하여 90년대의 재생은 정책과 집행에 있어서 더욱 종합적인 형태로 전환하게 되며 이에 따라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지역차원의 활동성장, 문화유산/자원 유지보전, 환경적 지속성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이 도입된다(김병준, 2010).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변화는 자본과 산업의 재편성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변화에 따른 산업과 공간의 구조적 변화는 기존 공간의 쇠퇴를 발생시키게 된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낙후된 도심지역을 새로운 생산양식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산업구조와 자본의 새로운 입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공간 재구성 전략이다. 많은 재생에 대한 정책과 전략들이 '재생을 경제적 발전과 동의어로 아 직도 이해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Smith, 2007:1)은 바로 이러한 자본의 재입지

라는 경제적 관점이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의 재구성은 자본의 재입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경제적 관점 이외의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생의 사전적 의미와 도시재생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볼 때, 관광지 재생은 물리적환경이나 상품 개발 등의 협소한 차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보다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공간의 재구성 전략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현대 사회의 도시재생 전략

유연적 축적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생산양식의 출현은 자본의 이동성 강화와 생산과정에서 디자인, 정보, 상징과 같은 기호적 요소의 투입 강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게 되며, 도시는 이러한 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을 재구성하게 된다(조명래, 2002). 9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도시 재구성전략이 제안되고 있으며, 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 창조도시 등과 같은 도시 재구성전략들은 모두 도시 재생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 전략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도시 재구성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재생 전략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의 재생전략이 있다. 이러한 전략에는 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 등이 있다. 두 번째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인 과학기술 발전이나 생산양식의 유연성과 같은 생산양식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중요한 도시재생 전략으로 보는 전략이 있다. 창조도시가 대표적인 도시 재생전략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뉴어바니즘과 영국에서 발생한 어반빌리지와 같은 도시개발전략은 유연적 축적을 강화시키기 위한 세계화의 발전과정에서 요구된 산업과 공간의 재구조화에 따른 자본의 새로운 필요성과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의 산업구조 재편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도시 공간 재구성전략이다(김홍순, 2006). 미국의 대도시는 80년대 이후, 도심에서는 기업본사가 배치되고 교외지역의 공간에는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기능이 배치됨으로써 교외에서의 독자적인 고용창출이 시작되었다(Garreau, 1988; 김용창, 2001 재인용). 이에 따라 중산층 중심의 교외화 지역에 새로운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할 다양한 계층의 입주가 필요하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중요한 개발패러다임으로 발전한 뉴어바니즘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중산층만의 주거지역의 교외화 지역을 자동차는 물론 보행을 통한 주거와 소비가 공존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려는 전략이다(김용창, 2001). 어반빌리지 또한 뉴어바니즘 개념과 유사하게 다양한

계층과 시설들이 혼재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개발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종용, 2007).

이에 반해 창조도시는 유연적 축적생산양식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 등과 같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의 쇠퇴와 중앙정부의 지원 감소 등은 기존 도시의 쇠퇴를 가져왔다. Landry(2000)의 'The Creative City'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가 어떠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의식 속에서 발간되었다(사사키 마사유키, 2001). 창조도시는 1980년대 영국의 Charles Landry에 의해 제시된 이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시도되고 있다(Smith, 2007). 주요 연구자에 따라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수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Landry에게는 도시의 문화적 인프라, Florida는 창조계급(인적자원), 사사키마사유키에게는 경제시스템이 대응역량의 전략적 수단이다.

유연적 축적 체제의 강화와 과학기술 발전은 전 세계적 차원의 사람과 정보, 자본, 이미지를 나르며, 놀라운 속도와 규모의 새로운 유동성을 발생시킨다(Urry, 2000:33). 이러한 세상에서는 자본과 인적자원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정체성은 약화된다(Landry, 2006). Landry(2000)는 자본과 인적자원의 유입과 정착이 도시발전의 중요한 과제가 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과 인적자원의 관심을 끌고 정착시킬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Landry(2006)는 문화가 도시라는 공간을 매력적이고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드는 수단이며 도시재생을 자극할 수 있는 창조적 자원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Landry의 창조도시는 도시가 직면하는 각종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창조적 문화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이다(임상오·전영철, 2009:170). 이러한 도시공간은 '전 세계의 투자은행, 내부투자기업, 토지개발자, 인재의 관심과 창조도시의 창조성을 도시에 고정시킬 수도 새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미디어의 관심'을 살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도시'이다(Landry, 2006:37). 따라서 Landry의 창조도시 재생전략은 유연적 생산양식에 적합한 창조계층을 유인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 구축과 도시정부와 금융자본, 토지개발자 등과의 개발연합이 중요한 재생전략이 된다.

이에 반해 Florida(2005)는 21세기 도시성장은 인간자본의 밀집에서 생기는 생산효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창조계급의 혁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본다(이철호, 2011). 유연적 축적의 생산양식은 디자인, 광고, 금융 등의 산업을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산업발전은 창조적 인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창조적 인력을

활용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이들을 끌어들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Florida(2005:38)는 창조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관용적이고 다양성을 지니고 포용적인 도시의 창조적 분위기(the creative atmosphere)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창조적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으며, 창조적 계층을 유인함으로써, 도시는 경제적 활동과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Florida, 2002).

사사키 마사유키(2001)는 창조도시란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동시에 탈 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라고 정의한다. 사사키 마사유키(2001)의 창조도시는 유연적 축적시스템에 적합한 도시로의 변화와 그에 대한 경쟁력의 요소로 창조 산업과 도시인들의 창조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도시시스템을 갖춘 도시이다. 따라서 대량생산이 아닌 특징이 있는 고품질을 생산하는 '산업지구'의 국제시장에서의 유연한 전문특화에 성공한 이탈리아 중부지역의 볼로냐, 피렌체, 베네치아 산업지구 지역이 사사키 마사유키(2001)의 창조도시의 중요한 사례가 된다.

3) 도시재생전략에 대한 논의

뉴어바니즘과 같은 재생전략은 생산양식 변화에 따른 생산구조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전략이며, 창조도시는 변화된 생산양식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이다. 따라서 도시 재생전략은 모두 유연적 축적생산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생산양식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 생산양식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의 도시재생전략들은 새로운 소비 공간으로서의 공간 재구성인 관광지 재생에 대한 연구가 단지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상품개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 변화된 생산양식에 적합한 공간 구조변화와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수요변화와 대응력 강화에 관련된 연구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뉴어바니즘과 같은 재생전략들은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의 변화가 관광지나 관광산업에서는 관광지 공간이나 산업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이로 인하여 새로이 요구되는 사회적 요구나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생산양식의 출현은 관광에서도 관광 상품의 생산과 공급 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관광산업의 구조나 관광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창조도시 관점에서 볼 때, 관광지 재생 전략연구는 현대 사회의 소비 주체인 관

광객을 유인하고 소비시킬 수 있는 장소 만들기와 이러한 장소만들기의 생산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특히, 창조도시의 재생전략은 유연적 축적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과 탈물질적 소비 사회의 발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소비사회에서 문화자원은 소비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창조성은 현대사회의 생산양식과 소비문화의 특성을 강화시키고 상품화시켜내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문화와 창조성은 기존 소비양식과 다른 차별화된 체험욕구와 소비의 매력성을 증가시킨다(Richards and Wilson, 2006). 그러므로 창조도시의 재생전략 관점에서 볼 때, 관광지 재생전략은 궁극적으로 현대사회 소비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존 소비양식과 차별화된 소비 매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품과 소비 공간으로서의 장소 만들기가 중요한 재생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 소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주체를 유인할 수 있는 공간 재구성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새로운 소비 공간의 창조와 소비 공간을 창조하는 주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남이섬이 있다. 남이섬은 예술가 출신의 새로운 리더를 영입하고, 이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공간 재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몰락해갔던 유원지를 새로운 관광지로 재생시켰던 대표적 사례이다(김성진, 2010).

Ⅲ. 관광지 재생연구 고찰

서구사회에서 70년대 이후 새로운 생산양식의 출현은 자본과 공간의 재구성에 따른 도심지역 쇠퇴와 개발패러다임 변화는 물론 소비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에서도 나타났다. 8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소비가 나타나고, 포스트포디즘적 방식으로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닝왕, 2000). 이러한 변화는 서구사회에서 대중관광의 퇴조현상과 대중관광형태의 관광지 쇠퇴를 가져왔으며, Butler(1980) 모델은 바로 이러한 시기의 관광지 쇠퇴에 대한 이론적 설명 중의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Butler(1980) 모델 연구는 새로운 자본생산양식의 출현과 관광지 재생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Agarwal, 2002). 그리고 리조트 쇠퇴와 전략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주요한 다른 이론적 접근으로는 재구성명제가 있다.

1. 관광지 재생의 의미

관광분야에서의 관광지 재생에 대한 이해는 주로 관광지의 물리적 환경과 상품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관점에 집중되고 있다. 관광분야에서 관광지 재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김홍운(1983)은 단양지역의 동굴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한 시설의 재배치 등에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 그리고 최승담·신정미(2002)는 쇠퇴한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도시 재개발 전략도입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토대로 재개발 가능한 관광지를 선정하고 공공주도형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분야에서와 같이 재생이나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한 분석과 이해 없이 사용되고 있다. 관광분야에서 관광지 재생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 김성진(2010)에 따르면, 관광지 재생은 물리적으로 낙후되었거나 기능적으로 약화된 관광지를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장소로 재창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매력적인 장소로의 재창조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기존 상품(시설을 포함한)의 질 향상,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질 향상의 결합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Chapman and Speake, 2011). 소비에 대한 선호와 매력성은 소비문화를 반영한다. 탈물질적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소비 공간과 상품에 대한 선호와 매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관광지의 매력성 향상의 관점에서의 관광지 재생에 대한 이해는 매력성의 선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소비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재생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보았듯이, 관광지의 재생 또한 소비 공간의 매력성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인 복합적인 측면을 포함한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매력적인 장소로의 관광지 재창조는 관광지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전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관광지는 단일 자본에 의한 소비 공간으로 구성되기보다 다수의 자본에 의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소비 공간이며, 각각의 이해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Buhalis, 2000; Lew and McKercher, 2006). 관광지와 같은 공간은 다양한 집단들의 실천전략을 통해 생산된다(Harvey, 1989). 새로운 매력적인 장소로의 재창조 또한 관광지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실천전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실천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관광지 재생은 쇠퇴한 관광지를 매력적인 소비 장소로 재구성하기 위한 각각의 산업이나 행위 집단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전략과 행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매력적인 장소로의 재창조

라는 관점에서의 관광지 재생에 대한 이해(김성진, 2010)는 유연적 생산과 탈물질적인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 생산양식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결합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장소 재창조의 방향과 행위 주체들간 관광지의 공간 재구성의 다차원적 전략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관광지생애주기 모델 중심의 관광지 재생 연구 고찰

1) Butler의 관광지 생애주기 모델

관광지 재생연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온 이론은 Butler(1980)의 관광지 생애주기 모델이다. 그러나 관광지 변화를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60년대 초부터 있어왔다. 이 중 많은 주목을 받은 한 가지는 Christaller (1963)에 의해 제안된 것이었다(Tooman, 1997). 예술가들이 먼저 영감을 얻거나 작품의 재료를 얻기에 적합한 보기 드문 조용한 장소를 찾게 되면 시인이나 영화 관련자, 식도락가 등과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따라 유명한 장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원래의 주민들은 떠나고 광고나 여행대리인들은 관광지로서 선전하게 된다. 그리고 원래의 대중적 인기의 배경인 자연과 문화적 매력성은 점점 자리를 빼앗기고 타락하게 된다. 다른 관점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은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Plog(1973)의 관광지 변화이다. 외향성(allocentrics) 관광객이 먼저 발견하고 찾게 되는 지역이 명성을 가지게 되면, 관광시설이 입지하여 양향성(midcentric) 관광객이 찾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관광객 유입은 명성, 접근성이나 편리성 등의 향상을 가져와 내향성(psychocentric) 관광객이 찾게 되는 관광지가 된다.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관광지 변화를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행위자와 관광공간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자본이나 국가 등의 역할이나 사회변화에 의한 영향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광지 변화는 사회경제나 문화의 변화는 물론 지역이나 국가의 개입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관광지 변화가 나타나는 매우 복합적인 현상이다(Shaw and Williams, 2004). 따라서 기존 이론보다 관광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많은 요인들을 포함하는 설명이 요구되었다. 관광지 또한 하나의 상품과 같이 다양한 단계를 거쳐 쇠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상품 생애주기(product life cycle)의 개념으로부터 발전시킨 Butler(1980)에 의해 제안된 6단계 모델¹⁾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노력의 결과물이다(Tooman,

1) 6단계는 탐색(exploration), 개입(involvement), 개발(development), 강화(consolidation), 정체(stagnation), 쇠퇴(decline), 회복(rejuvenation)단계로 나누어진다.

1997). 그리고 Butler 모델에서 각 발전단계에 대한 진단은 방문객수, 수용력, 지역주민의 태도, 참여정도 등의 지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Butler 모델연구에서 관광지 재생연구는 관광지 쇠퇴나 재생 단계에 대한 진단의 문제, 관광지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과 재생전략 등과 관련되어 있다.

2) Butler 모델의 관광지 생애주기 진단의 문제

Butler 모델을 관광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전단계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광지에 대한 정확한 경향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Hovinen, 2002)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방향 전환지점이 뚜렷하게 정의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측도구로 구체적 분석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렵다(Shaw and Williams, 2004). 따라서 라이프사이클모델이 예언적인지 계획자나 정책결정자가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ooper (1992)는 Butler 모델이 많이 연구되고 있음에도, 모델의 사이클 전환점과 각 단계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행위자들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한다(Prideaux, 2000).

Butler 모델을 이용한 관광지 생애주기에 관한 주요 연구들은 단일관광지를 포함하여 도시 단위의 관광지는 물론 다양한 관광매력물이나 자원에 적용되어 왔다(Lagiewski, 2006; Zhong, Dengand and Xiang. 2008 재인용). 버틀러 모형의 단계는 단일 매력물의 관광지에 잘 적용될 수 있으나 다양한 매력물과 산업을 가진 지역에서는 각 단계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거나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Hovinen, 2002). 성장단계와 정체, 쇠퇴의 단계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광지 발전단계를 특정 단계로 개념 짓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Russell and Faulkner, 1999). 박재모·여정태(2004)는 버틀러 모델에 기반한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한 섬관광지의 발달단계 구분을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Butler(1980:10-11)도 모든 관광지가 선명하게 모델의 6단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속도, 정부정책, 지역에서의 경쟁관광지의 수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전곡선은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Zhong et al., 2008:843).

Butler 모델이 발전단계 진단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적인 상품생애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관광지는 단일 상품과 달리 관광자원과 매력물 그리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광 생산물을 생산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많은 생산자들이 관여하는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루

어진다(Buhalis, 2000; Lew & McKercher, 2006). 관광지는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산업은 각자의 생애주기 곡선을 가진다. 그리고 관광지에서 하나의 상품이 쇠퇴하여도 관광지는 새로운 숙박시설이나 매력물 도입, 이미징변화 등은 물론이고 국제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의 창출과 같은 시장 변화나 대응전략에 의해 관광지가 쇠퇴하지 않고 재생할 수 있다(Zhong et al., 2008). 이러한 점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으로서의 관광지에 대한 생애주기 곡선을 하나의 상품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Butler 모델은 단일한 상품모델의 단순화로 인해 관광지에 실제 적용과 관광지 쇠퇴단계 진단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Hovinen, 2002).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Agarwal(1997:65)은 '리조트 사이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효성과 적용가능성 그리고 보편성은 아직 성공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Butler 모델에 의존한 관광지쇠퇴에 대한 사전적인 진단을 통한 재생전략 수립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3) Butler 모델의 관광지 생애주기 영향요인에 대한 문제

Butler의 관광지생애주기 모델 연구에서 관광지 변화(쇠퇴 또는 재생)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 요인들이 관광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문제와 연관된다. 관광지는 항상 관광지 외부의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다른 관광지와 경쟁하며 진화한다. Butler(1980) 모델은 시설 낙후와 사회적 수용력을 포함한 수용력의 관점에 주로 의존하여 관광지 변화를 설명하기 때문에, 관광지 변화를 추동하는 관광지 외적인 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Agarwal, 2002).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Agarwal(1997)은 관광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분류함으로써 Butler 모델의 약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자원과 매력물의 독특성,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관광자원의 품질악화 정도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질, 관리와 관련되며²⁾, 외부적 요인은 주로 공급자, 소비자, 조절당국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관련된다.

그러나 관광지는 관광지 내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은 물론 생산과 소비 양식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다. Agarwal(2002)은 외부적 요인에 사회적 변화요인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생산과 소비 양식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의한 관광지 변화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확장시키고

2) 주로 버틀러의 6단계 진단지표와 관련되어 있다.

있다. Agarwal(2002)은 관광지 쇠퇴를 시장의 경쟁과 내부의 환경요인의 상호 작용 결과로 파악하고, 경쟁을 강화시키는 소비의 변화(소비자의 욕구, 동기, 기대 변화 등)나 생산시스템과 소비과정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생산양식이나 기술의 발전과 같은 요인을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내부적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방문객수 감소, 이미지 퇴락, 환경의 질 낙후, 투자의 부족, 비관광 분야로의 전환 등을 관광지 쇠퇴의 증후로 파악하였다. Butler(1980)가 소비자의 선호와 욕구 변화는 관광지의 부흥과 하락을 부분적으로 촉진하는 요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반해, Agarwal(2002)은 소비자의 욕구나 선호 변화 등을 주요한 관광지 변화요인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Agarwal(2002)은 관광지 쇠퇴를 관광지 내부요인과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행위자 중심의 외부적 요인에서 보다 생산과 소비의 변화라는 관점으로 폭 넓게 외부적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관광지 쇠퇴와 재생을 라이프사이클 과정에 따른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진행으로 이해한다.³⁾

이와 같이 Agarwal(1997, 2002)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구분은 Butler(1980)의 모델에 비해 관광지 변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관광지 쇠퇴나 재생에 대한 이해가 관광지 내부적 요인과 이해관계자의 역할은 물론 관광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선호와 기호 특성이 관광지 쇠퇴나 재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결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garwal(1997, 2002)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구분은 관광지 재생에 대한 설명적 도구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요인들은 자동적으로 관광지 재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Agarwal(1997, 2002)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구분은 관광지 재생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나 환경에 대한 설명과 연결될 때 설명적 도구로 그 가치가 확대될 수 있다.

4) Butler의 모델에서 관광지 재생전략에 대한 논의

Butler(1980) 모델에서 재생전략은 진단을 통해 관광지 쇠퇴를 막기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을 고려한다(Hovinen, 2002:211). Butler(1980) 모델의 관점에서 관광지 재생전략은 주로 새로운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요구 등의 수준에서 논의된다. 그 이유는 Butler(1980) 모델

3) Agarwal(2002)은 관광지 재생을 뒤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구성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이 관광지 발전단계에 대한 진단과 이를 토대로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광학 분야에서 관광지 재생을 주로 관광지 매력성향상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매력성 향상은 사회변화에 따른 소비문화와 선호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창조도시전략은 바로 변화된 소비양식과 다른 차별화된 소비욕구를 반영한 매력성 강화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매력성향상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탈물질적 소비문화를 반영한 관광 공간과 상품생산이라는 설명적 이해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럴 때, 매력성 향상이라는 전략이 단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분석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Butler모델은 사전적으로 발전단계에 대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재생전략 수립과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관광지 재생 연구는 진단에 의한 대응의 문제에서 벗어나 관광지 쇠퇴와 재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 혹은 전략에 대한 지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산업은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산업마다의 쇠퇴나 재생전략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개별산업의 재생 전략에 대한 이해나 연구가 동시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재구성관점의 관광지 재생 연구고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지 재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Butler (1980) 모델에 의존하는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관점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 중에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가 공간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이다. 재구성 관점은 생산양식 변화가 공간의 생산구조와 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의 자본축적 양식 변화는 생산의 규모 변화 혹은 노동의 재조직화, 각 영역간의 자본의 전환 혹은 지리적 재구성을 가져왔다(Agarwal, 2002). 즉, 새로운 생산양식은 자신의 사회적 생산관계에 적합한 공간을 생산하며(Soja, 1989) 이러한 공간을 생산하는 구조와 과정을 변화시킨다(Preston-Whyte, 2001). 이와 같이 재구성 관점은 자본축적 양식 변화에 따른 생산과 노동의 재조직화와 자본의 지리적 재구성 등을 통한 공간재구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재구성관점에서의 관광지 재생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자본의 전환과 생산구조와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실천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재구성의 관점에서 관광지 재생전략을 분석한 연구로는 Agarwal(2002)의 연

구가 있다. Agarwal(2002)은 관광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구성(자본과 노동 과정을 포함하는)의 특성에 관심을 두고 재구성 전략 유형을 생산재조직화(투자와 기술적 변화, 집중화, 상품전문화)와 생산변형(상품서비스 질 개선, 환경 질 개선, 시장전환, 다각화, 협력, 순응)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재구성 전략은 포스트포디즘과 관련된 생산양식 변화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재구성 관점의 관광지 재생 연구는 관광지가 사회와 분리된 개별적인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총체적인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전개과정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재구성 관점에 의한 관광지 재생연구는 Butler 모델이 관광지 재생에 대한 이해에서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이해나 정보제공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일정 부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전략 연구들은 이러한 공간의 재구성전략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Agarwal(2002)의 연구는 상품 생산 과정 중심의 재구성의 특성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재구성 실천전략을 가지고 실천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간의 재구성 등의 관광 공간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재구성 관점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기보다, 현재 진행된 연구가 상품생산 중심의 재구성의 관점에 둔 연구에 제한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구성 명제에 의존하는 관광지재생연구는 공간의 재구조화와 실천전략 등을 포함한 연구로 연구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IV. 논의 종합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도시와 관광지 재생에 대한 의미와 재생전략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이해를 통해 관광지 재생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재생의 사전적 의미는 단지 물리적 재개발이나 단기적 처방의 의미가 아니라 보다 다차원적인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90년대 이후 재생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유연적 축적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생산양식 출현과 함께 도시재생의 정책과 집행에 있어서 종합적 형태로의 전환, 파트너십과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의 부각과 같은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생산양식 변화는 생산구조와 행위주체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며, 생산양식에 적합한 방향으로 공간을 재구성하게 된다. 어반빌리지와 같은 도시 재생전략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사회

에서 새로운 생산양식에 적합한 공간으로 새롭게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재생전략이며, 창조도시는 문화와 창조성에 기반하여 새로운 생산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혹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재생전략이다. 특히 탈물질적 소비가 강조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생산양식의 생산주체와 이에 맞는 장소만들기에 주목하는 창조도시 재생전략은 관광지 재생전략으로서 변화된 소비문화에 적합한 관광지의 장소만들기와 주체의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종합적 차원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있듯이, 관광장지 재생 또한 쇠퇴한 관광지를 매력적인 소비 장소로 재구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적 측면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전략과 행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관광지 재생연구는 기존 관광지를 쇠퇴시키는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새로운 관광지를 재구성하는데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와 전략에 대한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광지 재생연구는 도시재생연구에 비해 연구의 양이나 범위뿐만 아니라 관광지 재생의 의미와 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의 등의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이며, 현대사회의 사회경제, 문화 등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또는 요구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의 재생전략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Butler 모델과 같은 진단을 통한 예측적 관점의 재생전략 수립 모색 연구에서 벗어나 관광지 쇠퇴나 재생을 사회적 구성물로 접근하는 관점의 설명적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관광지 재생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Butler 모델은 진단을 통한 재생전략수립이나 관광지 쇠퇴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지식만을 제공해주고 있다. 김성진(2010)의 관점과 같이 관광연구에서 관광지 재생에 대한 의미는 Butler 모델에서의 재생전략이 시사하는 바와 유사한 관광지의 매력성 향상이라는 단편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관광지 재생은 단지 관광지의 매력성 향상의 관점보다는 사회적 변화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광 생산과 소비 등을 포함한 보다 폭 넓은 공간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전략 연구와 Agarwal(2002)의 관광지 재구성 연구는 관광지 재생전략에 대한 논의가 생산양식 변화가 관광에서 어떠한 새로운 요구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자본이나 정부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이와 같은 생산양식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연구가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재생전략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공간의 재생은 생산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매력성 향상이라는 관광지 재생전략 또한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기호나 상징소비와 같은 탈물질적 소비와 같

은 변화된 소비문화를 반영한 상품과 소비 공간의 생산에 대한 이해와 연결될 때, 실천적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연구로는 재구성관점의 Agarwal(2002)의 관광지 재생연구가 있다. Agarwal(2002)의 연구는 진단과 예측에 의존하여왔던 Butler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재구성관점의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으며, Agarwal(2002)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상품생산의 재구성차원의 연구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재구성관점의 관광지 재생연구는 다차원적인 관광지재생전략과 관광공간재생과 같은 공간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나 분석을 추구하는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재생의 의미와 도시재생전략과 관광지 재생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볼 때, 관광지 재생연구는 기존의 리모델링과 같은 단기 처방적이거나 예측적 관점의 관광지 재생연구에서 벗어나, 생산양식 변화와 소비문화 변화에 의한 공간의 쇠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생산양식과 생산관계나 소비문화의 변화에 의한 기존 관광지의 쇠퇴 원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변화된 생산과정과 소비문화 속에서의 차별화된 매력적 관광공간으로의 재구성에 대한 연구는 물론 관광 서비스의 생산구조와 관계의 변화 혹은 수요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의 지리적 재구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실천전략에 이해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생산양식 변화는 관광지 상품 생산의 구조를 변화시켰으며, 각 산업은 각각 다른 재생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지 재생에 대한 이해와 재생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관광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구조변화와 각 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관광지 재생전략에 대한 이해와 현대사회의 소비문화에 적합한 공간의 재구성 전략수립과 각 이해관계자들의 실천 전략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익·박경현·임상연·서태성(2009).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재생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김남주(2000). 차이의 공간을 꿈꾸며: 『공간의 생산』과 실천. 『공간과 사회』, 14, 63-78.
- 김병준(2010). 도시재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 김성진(2010). 관광지 재생-남이섬 사례연구. 『관광학연구』, 34(4), 183-202.
- 김왕배(2000a). 『도시, 공간, 생활세계-계급과 국가권력의 텍스트 해석』. 서울: 한울아

카데미.

- _____ (2000b). 공간정치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분석틀 :57-70.공간의 정치경제학. 한국공간환경학회(2000). 아케넷.
- 김용창(2001).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 특징과 성장편의 공유형 도시발전 전략의 구성. 『공간과 사회』, 21(1), 105-150.
- 김홍순(2006).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뉴어바니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2), 125-138.
- 김홍운(1983). 단양지역 동굴관광지의 효율적인 재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7, 18-32.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7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박근철·주범·김홍기·김세용(2011). 영국의 도시재생 전략체계와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 45(1), 11-26.
- 박재모·여정태(2004). 섬 관광지의 발달단계와 성장 가능성 분석. 『관광학연구』, 28(1), 169-185.
- 안재섭(2011).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125-137.
- 이종용(2007). 새로운 도시개발패러다임이 도시개발정책에 주는 시사점. 『지리학연구』, 41(3), 265-274.
- 이철호(2011). 창조계급과 창조자본: 리처드 플로리다 이론의 비판적 이해. 『세계지역연구논총』, 29(1), 109-131.
- 임상오·전영철(2009). 창조도시 담론의 쟁점과 재정학적 시사점. 『재정정책논집』, 11(3), 157-190.
- 조명래(2002). 『현대사회의 도시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조세환(2010).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전략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8(2), 109-118.
- 최덕철·김광우·정창무(2006). 영국도심재생 정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1261-1267.
- 최병두(2005). 공간과 사회에 대한 재인식. 『공간과 사회』, 24, 4-6.
- 최승담·신정미(2002). 낙후관광지 활성화수단으로서 재개발방식 적용에 관한 고찰. 『관광학연구』, 25(4), 33-47.
- 한국지역개발학회(편)(1996). 『지역개발학 원론』. 서울:법문사.
- 사사키 마사유키(佐々木雅幸)(2001). 창조하는 도시-사람문화산업의 미래. 정원창(역). (2004). 小花
- Agarwal, S.(1994). The Resort Cycle Revisited: Implications for Resorts. In Progress in Tourism, Recreation and Hospitality Management, C.

- Cooper, and A. Lockwood, eds., 5:194-208. London: Belhaven.
- _____ (1997). The resort cycle and seaside tourism: An assessment of its applicability and validity. *Tourism Management*, 18(2), 65-73.
- _____ (2002). Restructuring Seaside Tourism: The Resort Lifecyc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1), 25-55.
- Butler, R. W.(1980).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 5-12.
- Chapman, A., & Speake, J.(2011). Regeneration in a mass-tourism resort: The changing fortunes of Bugiba, Malta. *Tourism Management*, 32, 482-491.
- Christaller, W.(1963). Some Consideration of Tourism in Europe: The Peripheral Regions- Underdeveloped Countries-Recreation Areas.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Papers*, 12, 95-105.
- Collins, R.(2004). Interaction ritual chai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oper, C.(1992). The life Cycle concept and strategic planning for costal resorts. *Built Environment*, 18(1), 57-66.
- Florida, R.(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 _____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도시와 창조계급(2008). 이원호 · 이종호 · 서민철(역). 서울: 푸른길.
- Harvey, D.(1989).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 Blackwell. 구동희 · 박영민(역)(1994). 서울:도서출판 한울.
- Haywood, K. M.(1986). Can the Tourist-Area life Cycle be Made Operational?. *Tourism Management*, 7(3), 154-167.
- Hovinen, G. R.(2002). Revisiting the destination lifecycle mod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1), 209-230.
- Holt, D. B.(1995) "How Consumers Consume: A Typology of Consumption Pract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 1 - 16.
- Garreau, J.(1989). Edge City, Doubleday. NY.
- Landry, C.(2000). The Creative City. 창조도시. 임상오(역)(2005). 서울 : 도서출판 해남.
- _____ (2006). The Art of City- Making.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 메타기획컨설팅 한국어판 기획(2009). 서울: 역사넷.
- Lefebvre, H.(2010). La Production De L'Esapce. 공간의 생산(2011). 양영란

(역). 서울: 에코리브르.

- Lew, A., & McKercher, B.(2006). Modeling Tourist Movements- A Local Destination Analysi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2), 403-423.
- Oppermann, M.(1995). Travel Life Cyc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3), 535-552.
- Pageta, E., Dimancheb, F., & Mouneta, J.(2010). A tourism innovation case: An Actor-Network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37(3), 828-847.
- Plog, S. C.(1973). Why Destination Areas Rise and Fall in Popularity. *The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14, 55-58.
- Papatheodorou, A.(2004). Exploring the Evolution of Tourism Resor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1), 219-237.
- Priestley, G., & Mundet, L.(1998). The Post-Stagnation Phase of The Resort Cyc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1), 85-11.
- Prideaux, B.(2000). The resort development spectrum: a new approach to modeling resort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21, 225-240.
- Richards, G., & Wilson, J.(2006). Developing creativity in tourist experiences: A solution to the serial reproduction of culture?. *Tourism Management*, 27, 1408-1413.
- Richards, G.(2011). Creativity and Tourism -the State of the Art. *Annals of Tourism Research*, Available online 10 September 2011.
- Russell, R., & Faulkner, B.(1999). Movers and Shakers: Chaos Makers in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20, 411-423.
- Sharpley, R.(2002). The Consumption of Tourism. Sharpley, Richard.(2002) and Telfer, David J.(eds). *Tourism and development : concept and issues*. Channel View Publications., 300-318.
- Shaw, G., & Williams, A. M.(2004). *Tourism and Tourism Space*. Sage Publications.
- Sedmak, G., & Mihalič, T.(2008). Authenticity in mature seaside resor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5(4), 1007-1031.
- Smith, R. A.(1992). Beach Resort Evolution: Implication for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 304-322.
- Smith, M. K.(ed)(2007). *Tourism, Culture and Regeneration*. Trowbridge: Cromwell Press,
- Soja, E.(1989). Postmodern Geographies: The Rassertion of Space in Critical Social Theory.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이무용 외(역)(1997). 공간과 비판사회

이론. London : Verso, 서울: 시각과 언어.

Tooman, L. A.(1997). Applications of The Life-cycle Model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1), 214-234.

Urry, J.(1990) *The Tourist Gaze: Leisure and Travel in Contemporary Societies*. London: Sage.

_____ (2000) *Sociology beyond Societies: Mobilit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Routledge.

www.kourc.or.kr.

2012년 3월 14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2년 4월 9일 1차 심사완료

2012년 5월 16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2년 5월 17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